

고심 끝에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 업계 "세제혜택 원해"

당국, 상장규정 개정안 발표했으나 자산운용업계, '냉랭한 반응' 보여 직접적인 투자자 가입유인 필요

코로나19이후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늘며, 공모펀드 시장 자금 유입이 지지부진해졌다. 당국은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자산운용업계는 '세제 혜택'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자 가입 유인이 필요하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MMF·ETF 제외 '공모펀드' 규모 지속 감소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정 기준 머니마켓펀드(MMF)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공모펀드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 108조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127조2000억원 ▲2015년 114조2000억원 ▲2019년 112조원 ▲2021년 111조7000억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효과적인 국민의 재

공모펀드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한 운용·판매 책임성 강화

1

- 공모펀드 설치시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 의무화**
- 운용성과에 따라 **대체적으로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성과연동형 운용 보수 도입**
- 운용역량 집중을 위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 펀드 보수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상품선택이 가능하도록 **설명 의무 강화**

공모펀드 설정·운용 효율성 및 투자자 접근성 제고

2

- 장기 비활성 펀드의 펀드 **투자전략 변경 간소화**
- 환매금지형 및 전문투자자용 외국 펀드의 **투자자 접근성 제고**
- 대표지수에 연동하는 **인덱스 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수요자가 원하는 새로운 공모펀드 도입

3

-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의 운용 수요 충족을 위한 **외화표시 MMF 도입**
- 혼합형ETF 구성이 용이하도록 **혼합형ETF 지수구성 요건 합리화**
- **채권형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 허용**
-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 허용**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금융위

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우선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는 시딩 투자를 의무화한다. 최소 규제 수준인 2억원 이상의 시딩 투자로 운용 책임성을 강화한 공모펀드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자산운용 비용 규제 위

반시 준수기한과 소규모펀드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또 성과 연동형 운용 보수를 도입한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기준 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 운용 성과를 측정해 성과 초과 또는 부족이 발생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 보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이다. 결국 성과가 저조하면 낮은

운용 보수를, 성과가 높으면 높은 운용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외화 MMF 도입, 존속 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 허용, 혼합형 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가 도입된다.

◆장기투자 위한 '세제 혜택' 절실

반면, 운용업계에서는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지만, 투자자들의 직접 유인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 제도 개선책이 기존에 나왔던 내용의 되풀이에 불과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운용업계는 공모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과해 장기투자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면 이러한 자금이 증시 안전판이 되고, 증시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며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세제 혜택이 투자자 유인책으로는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고 있는 지

난 문재인 정부의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그 예시로 들었다. 만 19세~34세 미만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펀드 계약 기간 동안 연 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 정부 '끼인 상품'이 되면서 흥행 실패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조특법상 준비가 다 돼 있고, 상품만 내면 되는 상황인데, 아예 상품을 만들지 않는 운용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에셋원 공모주 알파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와 '한화 MZ픽 4차산업혁명 청년형 소득공제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등 운용사 두곳에서만 상품 출시가 이뤄졌다.

또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수익률 부진을 전적으로 운용사 책임으로 떠넘기는데, 운용사 자금 2억원을 넣으면 수익률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10%를 (한 종목 10% 이상 투자 제한) 등 공모펀드에 대한 엄격한 규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코스피 2250~2600선 예상... 9월도 부진한 흐름 전망

FOMC, CPI 등 주요 이벤트 예정 연구원 "증시 하방 압력 확대" 예상

제품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긴축 기조 유지 발언 이후 하방추세로 바뀐 국내 증시는 9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CPI(소비자물가지수) 등 주요 이벤트 발표가 예정돼 있어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9월 코스피에 대해 3분기 경기 실적의 여부에 따라 2250~2600선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9월 코스피 예상 밴드로 2250~2600을 제시했으며, 삼

<증권사별 9월 코스피 예상 밴드>

증권사	코스피 예상 밴드
케이프투자증권	2250~2600
삼성증권	2300~2600
현대차증권	2330~2530
한국투자증권	2340~2540
대신증권	2380~2550
키움증권	2380~2580

/각사 취합

성증권은 2300~2600을 전망했다. 대신증권은 2380~2550을 내놓았으며, 키움증권은 2380~2580을 제시했다.

나정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에는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3분기 실적 쇼크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시 하방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나, 코스피 2300선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9월 중순 이후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장기 하락추세가 재개될 전망"이라며 "8월 CPI, 9월 FOMC를 확인하며 물가 레벨과 통화정책, 그 사이에서 경기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3분기 프리어닝 시즌(9월 중순 이후)도 실적 전망 레벨 다운으로 이어지며 증시 하방 압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리인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9월에도 실적·정책·수주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중심으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정환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 에너지 자원(원유,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또한 확대되면서 LNG운반선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9월 추천 업종으로는 정유, 가스유틸리티, 조선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투자증권

국내·해외주식 투자 이벤트

한화투자증권은 10월 31일까지 '올가을 황금빛 국내/해외주식 투자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비대면 국내주식 이벤트는 생애최초 신규·휴면 고객이 대상이며 신규 비대면 계좌개설 시 모바일(SmartM)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평생 혜택을 제공한다. (단, 법인, 대주주, 영업점 계좌 등 제외, 우대수수료율 0.0040595%, 수수료 변동 가능)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및 이벤트 신청을 완료한 고객에게 현금 1만원을 지급하며, 이벤트 기간 내 100만원 이상 국내주식을 거래하면 추가로 현금 2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타사 보유 국내주식을 입고하고, 이벤트 기간 내 1백만원 이상 국내주식을 거래하면 순입고금액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입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이벤트 신청 고객에게 신용담보대출금리할인 혜택을 180일 동안 연 3.7% 금리로 제공하며, 적용 대상은 신용용자, 국내·해외주식 담보대출, 펀드담보대출 상품이다.

비대면 해외주식 이벤트는 생애최초 해외주식 거래 신청 고객이 대상이며 거래 신청 당일 95일간 미국주식 거래수수료가 0%(매도 시 0.00229%), 이후 365일까지 0.069% 모바일(Smart M) 거래수수료를 제공한다. /원관희 기자

코인 한파 속 거래소 실적 '와르르'... 순익 80% 급감

두나무 상반기 매출 61.31% ↓ 빗썸 영업이익 76.9% 감소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가상화폐(가상자산) 시장도 타격을 입으면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순이익도 80% 이상 급감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올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올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은 78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조291억원을 기록한 것과 달리 1년새 61.31% 급

감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5661억원으로 1년새 69.74% 줄어 들었다.

반기순이익 역시 1728억원에 그치면서 지난해(1조4685억원) 대비 88.23% 급감했다. 2분기만 34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번 실적 하락에 대해 업비트 측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라며 "순이익 감소는 업비트 거래 수수료로 수취해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시세 하락으로 평가손실이 증가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빗썸 역시 실적 급감이 이어졌다.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800억원, 1229억원을 기록하면서 1년 전 대비 각

각 60.92%, 76.90% 줄었다. 빗썸의 반기순이익은 75억원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4441억원) 대비 98.31% 크게 줄어 들었다. 빗썸 역시 2분기에 433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가상화폐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거래소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시장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2만55달러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11월 기록한 6만9000달러의 최고가 대비 70% 가량 떨어졌다.

각 거래소들이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거래소들은 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서 발급 수수료 및 입출금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이영석 기자 ysl@